

## 추신수 “텍사스에서 현역 연장 희망”

추신수(38, 텍사스 레인저스)가 현역 연장과 재계약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

18일 ‘OSEN’에 따르면 추신수는 전날 텍사스 지역 언론인 ‘포트워스 스타-텔레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을 통해서 “향후 몇 년은 더 현역으로 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며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추신수는 지난 2013년 시즌이 끝나고 맺었던 7년 1억 3,000만 달러의 계약이 올 시즌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올해 연봉은 2,100만 달러.

추신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액 연봉으로 줄곧 트레이드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결국 트레이드를 하지 못한 채 계약 마지막 시즌까지 왔다. 추신수도 자신의 연봉이 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만약 내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다면 텍사스에 남고 싶다. 구단을 과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전적인 부분은 텍사스 잔류에 걸림돌이 아님을 밝혔다.

1982년생인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 중 일곱 번째로 나이가 많다.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7년 전과 운동 능력과 가치 등이 같을 수 없다. 이전과 같은 대형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일단, 텍사스 지역 언론, 구단 모두 추신수의 경쟁력과 활용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51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6푼5리 24홈런 61타점 OPS 0.826의 성적을 남겼다. 홈런은 자신의 한 시즌 개인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은 “추신수를 정말 높게 평가한다. 그는 내가 본 선수 가운데 가장 준비된 선수이다. 체력적으로 여전히 뛸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지난 시즌과 비슷한 생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신수와 재계약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트워스 스타-텔레그램’ 역시 “텍사스에 추신수는 여전히 최고의 옵션이다. 그를 대체할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신수의 경쟁력을 높이 샀다.

## NBA 올스타전 MVP상 이름 ‘코비브라이언트 어워드’

### 초대 수상자는 LA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

미국프로농구(NBA)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에게 주는 상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름이 새겨졌다.

NBA 애덤 실버 커미셔너는 지난 16일, 올스타전을 앞두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2019-2020 NBA 기자회견에 참석해 올해 올스타전 MVP에게 줄 트로피를 공개하며 “앞으로 NBA 올스타전에서 MVP에게 주어지는 상 이름을 ‘코비 브라이언트 MVP 어워드’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실버 커미셔너는 “코비 브라이언트는 NBA 올스타의 동의어이고, 세계적인 농구 축제의 정신을 상징한다.”며 “올스타전 MVP 상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브라이언트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초대 ‘코비 브라이언트 어워드’ 수상자는 카와이 레너드(29·LA클리퍼스)였다.

팀 르브론은 이날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팀 야니스와의 NBA 2020 올스타 게임에서 157-155로 승리했다. 초대 ‘코비 브라이언트 어워드’를 수상한 레너드는 이날 경기에서 팀 르브론 소속으로 30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팀 최다득점을 올렸다.

레너드는 “(2020 NBA 올스타 게임 MVP는)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첫 코비 브라이언트 트로피를 탄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다. 날 위해 긴 대화와 운동을 함께 해줬던 코비에게 감사하다. 이 상은 그를 위한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난달 말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브라이언트는 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1997-1998시즌부터 선수로서 마지막 시즌인 2015-2016시즌까지 18년 연속 올스타로 선정됐으며 등 4차례나 올스타 MVP에 등극했다.

## 손흥민 오른팔 골절로 수술 시즌 아웃?

손흥민(토트넘)이 오른팔 골절 부상을 입고 수술대에 올랐다.

손흥민은 지난 16일 열린 아스턴 빌라전 경기 시작 1분 만에 불경험 과정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오른팔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손흥민의 시즌 아웃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토트넘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은 메디컬 팀의 진단에 따라 몇 주 동안 재활에 전념할 것”이라며 “재활에만 주주가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리뉴 감독은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손흥민의 이번 시즌 복귀를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손흥민의 부상은 손흥민 자신과 토트넘 모두에게 비상이다. 손흥민은 EPL 통산 51호 골을 넣으며 아시아 최다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개인 커리어 최초로 5경기 연속골 업적도 쌓았다. 이처럼 상승세에 있는 손흥민의 부상은 토트넘에 큰 악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손흥민의 수술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부상 투혼도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도 풀타임을 뛰면서 멀티골을 기록,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2017년 6월에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일원으로 카타르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원정에 나섰다가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넘어지다가 오른팔로 땅을 짚은 뒤 ‘전완골부 요골 골절’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손흥민은 수술을 받은 뒤 그라운드 복귀까지 2개월이 소요됐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상 상태를 정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골절상인 만큼 회복에 3년 전과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4월 말 복귀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이 5월 17일 열리므로 손흥민이 시즌 막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문

# Pine Tree Construction

## 부엌 /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

전기/플러머/타일 25년 이상 풍부한 경험!!!

최고의 기술력 & 정직한 회사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

주정부 면허회사  
CA Lic #:1051205